

# 교육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김포시청 교육전문관 황윤길

##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4가지>

### ● 토론자 소개

199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경기 성남, 부천, 김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전교조 지회장 및 사무국장을 거치며 부천에서는 시민, 교사, 학부모가 교육 의제를 함께 고민하는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하였고, 김포에서는 김포교육자치포럼을 통하여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친환경 급식 및 고교평준화 관련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용휴직 형태로 김포시청 교육전문관으로 일하며 김포형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4가지

#### 1. 예산

##### ○ (관-관) 따로 국밥 예산 집행과 정산

경기혁신교육지구 사업비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역의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반면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의 비대칭이 심하다. 김포시의 경우 김포시 40억, 경기도교육청 5억의 예산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은 학교로 보내고 교육청은 자체 집행으로 운영된다.

##### ○ (민-관) 거버넌스에서 수행기관으로

사업의 비전을 세우고 함께 운영하는 주체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사업의 수탁자로 변화된다.

○ 의 건 : 지자체 예산과 교육청 예산 통합,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확대, 민간 공모에서 직접운영으로 민간 역량 증진

#### 2. 법률

##### ○ (관-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예산운용이 가능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를 이루고 있으나 단위 학교 완결 가능한 학교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높은 교육자치가 좋은 교육을 보장하지 못한다.

○ (민-관) 거버넌스는 센터에서 머물러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 또한 상당한 협의회나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의 발전적 형태가 ○○센터이다.

○ 의 견 : 교육자치가 지금 보다 좋은 교육과 학교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교육자치를 통해 완결 가능한 민주적 학교자치를 이루려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센터에서 과, 국 수준의 거버넌스로 변화해야 한다.

### 3. 사람

○ (관-관) 결국 사람

관리자 : 정책 방향 제시, 협업 명령이 가능한 자

주무관 : 교육청, 지자체 정책의 실무 담당자

장학사 : 교육청의 정책을 담당 운영자

교사 : 시민의 입장과 교육현장의 입장을 함께 전달 가능한 자  
함께 일하고 방향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잘 자리잡을 수 있다.

○ (민-관) 무림 고수 찾기

거버넌스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편중되지 않는 교육분야 민간 인사 찾기는 참 어렵다. 게다가 공무원의 인사는 참 자주 돌아온다.

○ (민-민) 사람이 없다

거버넌스를 유지 운영하며 자신의 조직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새로운 사람이 어디나 없다.

○ 의 견 : 교사의 교육거버넌스 기구 파견 필요함. 교육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국가적 사업에 해당되며 교사의 파견은 가능하다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의 능력자 찾기는 숨은 진주 찾기. 진정한 고수는 통틀어 몇 안된다. 공무원이 만들고 키워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지켜주고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

### 4. 욕구

○ (관-관) 성과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지자체 장의 선거는 4년에 한 번 돌아오며 공무원은 매년 인사 고가가 매겨진다.

○ (민-관) 성과 욕구를 인정하라  
인정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다.